共產黨公判 判事를代任
마튼판사의병이심하야저서 할수업시다른판사에맛겻다
開廷은九月?

조선공산당사건(朝鮮共產黨事件)은예심을마친긔록(記錄)을 인쇄하노라고 오랜시일을 보낸더니간신히인쇄를마티어삼뎐촌(三田村)경성디방법원부장판사가어것을읽다가또병이나서알는까닭에긔록을 읽지못하야 칠월중에개정하라든공판도딸아서그긔약이묘연하다함은이미보도하얏거니와 그후삼뎐촌판사의 신병은도모지나을긔약이갓갑지아니하고점점더하야 할수업시 륙월에이르러는삼뎐촌판사대신으로경성복심법원미사부판사시본(矢本)씨에게맛기기로결정하얏는데 이제부터시작하야 읽는다하여도칠천여장을다읽으라면월여를가저도 다읽을수가 업슬터임으로자연히공판은일러야팔월중에하게될터인데 방금 일긔가 몹시더워서 그긔록만종일 읽을수업는터임으로 읽는데에도 능률(能率)이못지아니하며딸아서 서중휴가(暑中休暇)가얼마남지아니하얏슴으로 여러가지 사정을 보아팔월중에도 역시문데임으로구월중에나 개정하게 될는지 알수업다는바 이에대하야 경성디방법원장미검사정 (長尾檢事正) 은알에와가티말하더라

이사건은아시는바와가티긔록이만허서용이히읽을수가업는터인데삼뎐촌판사는그러케알는중에도작고자긔가하겟다하니사무도 사무이나 몸을위하야별구커를한것입니다공판긔는언제가될는지아직알수업습니다

淫蕩한歌舞로 教室의神聖을汚損
長連公普教員의非行
자긔들의잘못을말한다고 青年會幹部를亂打

지난륙월륙일오후 열시경에 황해도 장련공립보통학교(黃海道長連公立普通學校)교원백모(教員白某)와 조모(趙某)는장련청년회집행위원 (長連青年會執行委員)김찬긔씨(金贊基)를 무수히란타하엿다는데 그자세한사실을 묘사한즉 지난오월단오에 장련각희대회(長連脚戲大會)에서 전긔보통학교교원김광주(金廣珠)가일등상을타게되어 동교직원(校職員)들과 각희대회 임원들이 동교사무실에모혀 음탕한가무로 질탕히 놀아 신성한교육장소의 풍긔를문란케 하얏슴으로 전긔김찬긔씨는 그런것을 묵과할수업다하야 청년회 집행위원회를 열겟다하엿슴으로 그가티구타를당하엿다는데학교숙직실(宿直室)에서구타를시작하야 교장사택에까지가며 계속하야 전긔김씨는 인사불성이되어 인력거(人力車)를타고집으로몰아갓다는바 전긔 보통학교교장은의사(醫師)까지청하야진찰을하고 약(藥)을 써주엇다는데일반은 학교당국에서 그런교원에게 아무처치도업는것을 분개한다는바 일부교원측과 친분이잇는자들사이에는 불과 긔십명이 모혀서 시민대회라는 명목을부처가지고 남들이야 무슨행동을 하든지 관계가업는데 그따위소리를한다고 김찬긔씨를 성토하느니 김찬긔씨가 취급하는신문의 비매동맹을 하느니하고떠들며 당디청년단톄에서는 교원폭행사건을 묘사하고자 일간에집행위원회를개최하얏다더라

老處女逃走

시내 합동(蛤洞)륙십팔번디최광희 (崔光熙) 의누의동생최옥순(崔玉順)이라는스물한살된처녀는집안이 넉넉지못하야동대문밧서울고무공업회사직공으로 다니든터로 피면하도록시집을가지못하야항상우울한빛으로지내든중지난일일밤에 홍시사경에는 온다간다말도업시슬며시나가서이때것돌아오지아니함으로가족들은부근에나던자의유인을바다괴악한곳에나빠지지아니하얏나하야매우우려하든끗테 시내서대문 경찰서에 수색원(搜索願)을데출하얏다고

少年窃盜逮捕
륙일본뎡서원이데포

륙일오후한시이십분경에시내남대문통일본생명(南大門通日本生命)보험회사에 거동이수상한소년한명이 배회하는것을본뎡서원(本町署員)이 발견하고 취됴하라던즉 유에 별안간 도망함으로 즉시쫏차가서 데포한후취됴하여본즉 이자는 시내인사동(仁寺洞)이백삼번디 리순남(李順男)(二六)이라는 자로서 동일오전 여덟시경에 종로(鍾路)이뎡목 중앙리발관(中央理髮館)에들어가서 『바리칸』 과면도등을 훔치간것을 자백하얏는바 소매치기에도 관계가 잇는듯하야 방금엄중취조 하는중이라더라

寧邊產業組合 女職工突然盟罷
문뎨는기사의불미행위

평북 녕변(平北寧邊) 산업조합(產業組合)이시설된지 불과 몃달이 지나지안흔오날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로 분규가끈치지안튼중 최근에이르러서는 전긔조합의녀직공(女職工)전례가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는데 그리유는 조합기사박모(朴某) 는항상녀직공들에게 음란한수작을 함부로할뿐만아니라가티불미한행동이잇다하야그리한것이라는바녀공측의요구는전긔박기사를면직을시켜야복직하겟다고강경히주장하나조합리사(理事)는박기사를옹호함으로문뎨가복잡히되어가는중이라더라(안주)

寧邊社會奮起
하회를기다려

별항보도한녕변산업조합녀공들이동맹파업을단행하얏슴으로동조합에서는평의회를열고선후책을토의하는중이라는데리사는철머로박기사를옹호함으로원만한해결을짓기가곤난하다하며만일 평의회에서 원만히 해결을짓지 못하는때에는 녕변각사회단톄(各社會團體)에서그진상을조사하야세간에발표하리라더라

自働車에負傷

시내 도화동(桃花洞)사백구십사번디 얼음판매업(氷販賣業)하는홍대집(洪大集)([illegible])은 지난오일 오후아홉시 사십오분경 시내태평통(太平通)사십구번디압길을통행하다가 그때마츰 달려오는삼백십사호 자동차에 치어 일시는 인사불성이되엇슴으로 곳부근병원으로다려다 가응급수당을한결과생명에는 별로관계가 업스나 전치되기까지는약십일가량걸리리라고

怪異한雛鷄

평남덕천군덕안면덕동리백학규(平南德川郡 德安面德洞里白學圭) 의집에는지금으로부터약한달전에깐병아리한배가잇는데 그중한마리는날개가안이것츠로 것치안으로뒤즈펴달렷다는데듯는사람들은구경가느라고야단이라고(덕천)

三姊妹校의『養明會』創立
고순비전하의유지를봉대한 삼자매교졸업생의대동단결
◇當局은嚴重監視

숙명,양정,진명의 세학교졸업생이합동하야 양명회를 조직하고저 그동안창립준비에 분망하든바 예정과가티 륙일오후다섯시부터 시내진명녀자 고등보통학교 (進明女高普)안에서 창립대회(創立大會)를 열엇는데 숙명학교분규 (淑明學校紛糾)가잇는써임으로경찰당국(警察當局)의엄중한 감시알에에서 학교졸업생 일백삼십여명이모혀 정자영(鄭子英)씨의 간단하고의미심상한 개회사(開會辭)로비롯하야 긴장한가운데 림시의장정수일(臨時議長鄭秀日)씨 사회 (司會)로 토의 사항에들어가 먼저진명고보교장 엄준원(嚴俊源)씨의 축사(祝辭)와 각디로서온 축뎐(祝電) 십여통의랑독이 잇난후 순서에딸아선언강령(宣言綱領)을 작성하야 통과한후에다시위원을선정하얏는데 선언과강령 밋선거된간사(幹事)는 알에와갓더라

◇宣言 (略)

◇綱領

一、母校로하야금故 淳妃殿下의遺志를더욱美化케하기로함

一、會員互相間의敦睦과團結을期함

◇幹事

金基鎬 李玉順 白南舜 張金山 郭敬鳳 金眞培 玄曾順(以上淑明)

李星鎔 李學善 鄭秀日 白弘均 洪喜秀 李瑛九 徐範錫(以上養正)

石子玉 吉貞姬 金貞姬 鄭子英 朴熙璟 全智子 韓姬命(以上進明)

淑明校問題討議는 當局에서中止命令
장내는자못긴장중에폐회

양명회 창립대회는 성황리에 창립되엇다함은 별항보도와 갓거니와 대회가끗난후에 간친회(懇親會)를 열엇는데 그석상에서 숙명분규사건(淑明紛糾事件)에대한 보고(報告)와 의견이일어나자 립장하얏든 종로서(鍾路署) 경관으로부터 중지명령(中止命令)이나리자참집하얏든 회원은총긔립이되어 당국의 무리간섭을 질문하는동시에 재삼교섭하얏스나 드되어 그명령을 철회치안흠으로 이에분개한일반의맹렬한 질문과 항의가 잇섯스나 필경 모든것은 간사회(幹事會)에일임키로되어겨우 해산(解散)명령은 면하얏스되 일시는 자못긴장하야 장내가분운하얏섯스나 각방면의 중재로 무사히 동팔시삼십분에 양명회 만세삼창으로 폐회하얏더라

第一回幹事會

새로조직된 양명회(養明會)의 데일회간사회(第一會幹事會)를 칠일 오후팔시부터 시내서소문뎡(市內西小門町) 길정희(吉貞姬)씨집에서개최하고 대회에서위임된 모든사항을 토의하리라더라

때맛난해수욕장……◇

不測한奸計에속아 土地일코子婦見失
논갑는흐지부지다녹아버리고 검사국출입으로며느리도일허
【逆境에우는朴令禮哀話】(二)

그이튼날인 구월일일에 이소식을들은 박금례는 즉시쫏어경찰관주재소에가서 증서와 도장을 찻자달라고구두호소를하야곳던병난을 인계취됴중인데 면라구는 주재소에가처잇는 그의생부 전병만의 매일삼시밥을 가지고 다니게되엇다 구월오일 아츰에 역시 밥을가지고 주재소에가는 도중에서 림로규와 리뎡래가던라구를붓들고 토디매매 계약금이라하며 현금백원을 내어줌으로 면라구는밧지안흐려한즉아니바드면네의생부가지역을간다는등『도네가토디매매승락을하엿다고 주재소에말을하여야 장역을 면할것이라』는등 백방으로 륜리상(倫理上)생부에게동정하엿어머니 아모철업는 면라구는 집헛술만아니라 사회경험이 조금도업는전라구는도백원을밧고 그비둘가르치는대로말을하엿섯다 그리하야 보성경찰서와장흥 검사국에까지 몃번을 왕래하다가 결국사건은 불긔소처분이나고토디는 매매성립이되고말엇다 그러면논판돈은 엇지되엇는가? 도주치못하는 전병만의손에서까러업시 소모될것은 물론이려니와 림로규에게 바들논갑 칠백오십원은 시가사십원도 못될 선암리(船岩里) 산골작에잇는 림로규의 논두말락을 매듭빼칠십원에 결뎡하야 토디로인수하고 이백원은 림로규의 차용증서 다시말하면 사는림로규가 논파는 전병만에게빌려쓰는형식으로쳐하고남어지삼백여원은 오리무중(五里霧中)에 잠겨잇다고한다 또 며느리는엇지하여일헛는가?박금례모자는 이사건이발생함으로 주재소경찰서검사국으로갓다왓다 몃달동아집에잇지를못하고 다못젓은 며느리와 총각아이머슴과 두사람이 집을직히고 잇는동안 청춘남녀가 성뎍 (性的)충동으로추한관계를맷게되어른지필경 전라구의눈에발각되어 할수업시두남녀가다라낫다 한다

『불상은하나 할수업다』
三森巡查部長談

별항의사건을 처음취급하든 ■어경찰관주재소 수석 삼삼순사부장 (栗於警察官駐在所首席三森巡查部長)은방문한즉『사실이 원통한것을 번연히알면서도 당사자가어리석어 증거인멸(證據湮滅)이되니 할수업시그러케된것입니다하야 어석한태도로 말하더라

『오히려 可矜하다』
【成郡守談】

별항사건의주인공림면장을직접감독할책임이잇는보성군수성정수(成禎洙)씨를방문한즉알에와가티말하더라

림면장은 면임군수가 임명하엿스니 내게는책임이업고사실은잘못인줄아나현대법률에도가허락하는이상밋수업슬뿐아니라림면장의처디가가이업서서다소동뎡하여주엇노라

이사실이장흥검사국 (長興檢事局) 에서불긔소처분이된원인은 박금례의친족전성만(全成萬)을 증인으로처음세웟든것이나다시 림면장과공모한사실을자백하여 금번에는피고소인으로하야광주 변호사송화식 (光州辯護士宋和植氏) 를대리로위임하야다시장흥검사국에고소를하얏다한다. (보성)

拳鬪猛將網羅한 大學生强盜團
동경시외에서만팔십여건
警視廳에서一網打盡

동경경시텽 형사부(東京警視廳刑事部)에서는 수일전부터권투선수(拳鬪選手)로서최근전일본선수권대회(全日本選手權大會)에출전한 동경고등공업학교(東京高等工業學校)생도인 신뎐명(新田明)(二)외 십여명을 인치하고 엄중취됴중이라는데 그들과동경은좌(東京銀座)기타에서 범행한 강도(强盜)사건의 팔십여건이나되는 범죄는전부 그들고공생(高工生)을위시한대학생(大學生)일단의소위로 판명되엇다더라

愛知縣下에 大暴風雨襲來
침수가옥삼백여호

오일오후열시경부터일본명고옥(名古屋) 디방는대에 큰폭풍우가일어나 뢰호정(瀨戶町) 에는 침수가옥이 삼백여호나 되엇고 애지현 장구수촌(愛知縣長久手村)은더문허진가옥이 한채요눌려죽은녀자가 한명이잇고 그외에도 피해자가만흔 모양이더라 (명고옥전)

嫉妬甚한本妻가 庶子를毒藥먹여
남편의사랑을찻고자햇다고
◇警察取調에自白

전남장성군장성면 령천리(全南長城郡長城面鈴泉里)에사는 김길수(金吉洙)의 집에서는 어린아이가나흔지 십오일만에 양재물을 먹엇다는소동이 일어나서일시는 그내용을알고저 하야 매우궁금하여오든바 이제 그내용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전긔 김길수는로동하는 사람으로서본처김성녀(金姓女)(二八)와 동거하는중에 길수는 어느곳에서엇더한 녀자를 본것이외에 아이를 배에게되어 할일업시집으로 다려다가 아이를나토록하엿섯는데 아이가나흔후 이것을시긔한 본처김성녀는엇던 방법으로라도 첩과아이를모함하야다시자긔에게정을옴기도록연구하기에정신을차리지못하든중지난 월일 오후에 그아이어머니는빨래를하러가노라고 어린아이는 잠을재워방에뉘이고 나간후에 동 다섯시쯤되어 돌아와본즉 어린아이해가 긔절을하엿슴으로 입을보즉 난데업는 양잿물이 입에서 흘러나렷슴으로 괴이하게생각하든중 이급보를들은 경찰서에서는 현장에 출장하야 일변응급치료를하는동일변으로는그집안의내막여하를조사하야 본처의투긔로그런것이아닌가하야김성녀를인치취됴한결과자긔에게대한남편의사랑을쌔앗고분한을참지못하야 어린아이만 남몰래 죽여버리면 자긔를사랑하는정이다시 돌아올까하야 양잿물을먹엿다는것을 자백 하엿다는바어린아이는목구멍은상하지 안엇스나 입안이전부다다서 쳣도웰치못하며아직은생명에는관계치안흣나 오랫동안치료를 안흐면안되겟다 더라(장성)

管外出版을取締코자 各地警察과交涉
조선내의각단톄가 취톄망을 써나일본가서출판을해온다

요사이 조선에서는 출판물 (出版物)인쇄물(印刷物)의 취체는 사회사상(社會思想)이 점점로골화(露骨化)됨과 동시에 이에대한 취체가엄중하게되는 중이바 민족운동(民族運動)과공산운동(共產運動)의 각단톄는 동경(東京)과대판(大阪)등디의조선인단톄 또는 지회(支會)지부(支部)들을통하야 선전적『판푸렛트』와『리푸렛트』등을 다수히 출간하야 이것을다시 조선내디로 우송하야옴으로 당국에서는 이에대한취테에대하야일본각디의 경찰당국과련락을취하랴고연구 중이라더라

牛賊苛責으로 警察에自首

결국검사국에 상도자데가 洋傘窃盜질

논산군양촌면양촌리 (論山郡陽村面陽村里) 배승휴 (裵承休)(二九)는 군산(群山) 시내다섯곳에서 다섯개의 양산과두곳에서 양복을 절취하엿슴으로 군산서에서 취됴를 마치고검사국으로 넘기엇다는바 그는 자칭그전군수의아달이라고한다 더라(군산)

約婚한新郎을 미친개가물어죽여

전북옥구군림피면월하리 (全北沃溝郡臨陂面月下里) 에사는고춘삼(高春三)의장남고병배 (高炳培)(一八)는지난 음오월이십팔일에미친개한테물려죽엇는데이제 그자세한원인을 들어본즉작년십이월경에 그동리에서 광견(狂犬)에게물린후로그사이는아무병이 업다가 이번에이르러만칠개월만에 광견병이 발생되어 수일간신음하다 가그만사망하엿다더라(강경)

人蔘宣傳文 紙幣로使用

이삼일전에 중앙물산회사(中央物產會社)에서 『미나리』를사고 우수리로바든돈 가운데에서 일원자리 위조지폐를 발견하엿는데 이것은위조지폐가아니라 시내서대문뎡(西大門町)조선인삼제조소 (朝鮮人蔘製造所)의 인삼환 (人蔘丸)이라는 선뎐긔비라를로서얼핏보면 일원지폐비슷하고 그후면에는 조선은행의막크가잇서 이것을 네번접으면 누구든지 일원자리로 모르고밧게되는데 중앙물산 회사에서만 벌서이삼회이나 이런일을 당하엿슴으로 다른곳에서도 상당한 피해가잇슬모양이라더라

日本阿蘇山 南池에突然噴火
오일오후팔시에돌연폭발
原因은一時的現象

일본아소산 분화구(阿蘇山噴火口)의남지(南池)가지난오일 오후여덟시십분경에 폭발되어 용암(熔岩)이 수천척되는 공중에까지 올라가산록의마을에는참문이진동하고 집밧그로 뛰어나아간사람도 만엇는데 진동은십분간계속되엇스며 분화의 원인은 수일래의큰비로 일부가함몰한결과 다른부분이분출된 한때의현상이라고 당디측후소 에서는말한다더라(웅본뎐)

元山遊廓에 娼妓가飮毒
신세를비관하야

원산부양디동(元山府陽地洞)송

行李속에 小兒屍
다리미테표작

군산동해안의스탠다드석유회사엽 잔교(棧橋)알에에 조고마한 행당하나가 잇는것을 엇던사람이발견하고 행당을열고보니 나은지멘달아니된 어린아이의 죽은시데가 잇슴으로 아마도엇던자가 불의의정을통한 죄악의씨나아닌가하야 소관서에 계출하얏다더라(군산)

精神病者發狂으로 鐘路通에大騷動
휘둘르는텰봉에소아부상

오일오후일곱시경에시내종로삼뎡목로상(鍾路三丁目路上)에는 돌연히 년령이삼십여세쯤 되어보히는미친사람한명이기리가두자다섯치가량이나되는커다란텰봉(鐵棒)을휘두르며지나가는사람을함부로따리려함으로그부근파출소에잇든 종로서 상뎐 (桑田) 도문치(都文治)의두순사는 만일을념려하야죽을힘을다하야 광인을붓들고자일대격투를연출한후겨우데포하야 본즉 이자는 시내방산뎡일백사십번디 (芳山町) 리효식(李孝植)으로판명되어즉시그의집으로돌려보내엇다는데텰봉을들고휘돌르는바람에 그부근에 잇든나히 일곱살쯤 되어보히는어린아이하나가부상을 하엿다는데 일시는 구경하려고 모혀든군중이 무려오백 에달하야뎐차까지 단이지를 못할만큼 일대혼잡을일우웟섯다 더라

泥醉警官이 行人을亂打

황해도 옹진경찰관 강령주재소(黃海道甕津警察官康翎駐在所)에근무하는 강주보(姜周甫)라는순사는 지난륙월 이십칠일밤중에 술이 취하야오고가는사람을 함부로 란타한사실이잇서일반은그비행을비난한다는데이제 그사실을 들으면 전긔강순사는 이십칠일이 숙직임도 불구하고 자정이지나기까지 술을 마시다가돌아가든길에 보이는 사람마다차고압으로몰어서 피해자 십여명중에서 수명의중상 자를내이고서도 부족하엿든지 진남포(鎭南浦)에 현주를둔 선부 (船夫) 리선영(李善榮)외 차모(車某)가 그곳을지나자역시전과가튼비행을함으로 전긔 두사람은 그곳주재소로 쏫을고가서 또구타하든중 동주재소장은 또한일야간검속을 시키어 피해자두사람은 의사(醫師)의 진단서를바다가지고 해주디방법원 검사국(海州地方法院檢事局)에고소를 데긔하리라는바 전긔 두사람은 진남포로가는 선임(船賃) 이백여원어치를풍을잇고급급히가려든중의외에 변을당하야 손해도 적지안타하며소위인민을보호하여준다는경관으로서이와가튼비인간뎍비행을하야일반은극도로 비난한다더라(옹진)

怪靑年은窃盜 窃盜는强盜
심문을딸아발로

지난륙월이십구일오후두시경에 시내수은동이십구번디(授恩洞) 시계포오광표(時計舖吳光杓)의 집에 년령삼십세쯤되어 보히는 로동자풍의 사나희하나가금시계한개를 사원에 팔고가는것을 종로서원이발견하고 이상히 생각하야 본서로인치한후 엄중 취조하야본즉 뜻밧게 이자는전과삼범(前科三犯)으로일정한주소가업는리경희(李敬熙)(三)라는자로서전긔금시계는시내봉래정삼정목삼십륙번디(蓬萊町)에 사는딸로(末路)의것을절취한것 이판명되는동시에지난삼월십구일 오후여섯시삼십분경에 경긔도진위군부용면추팔리 (京畿道振威郡芙蓉面秋八里) 로상에서 동군동면두리(同郡同面頭里)이십팔번디에사는 소장사(牛商) 리하범(李夏範)(云)에게서 소판돈 일백이십칠원각수를 강탈 도주한 여죄까지 발각되엇다는데 종로서에서는 목하강도상인죄(强盜傷人罪)로엄중취됴중이라더라

留置場에서 赤痢에걸려

십수만원의사긔횡령(詐欺橫領)사건으로본정서(本町署)에수용중이엇던 주식회사 조선무역조합(株式會社朝鮮貿易組合)의중미지배인(中尾支配人)은오일류치장안에서 적리(赤痢)에 걸리어즉시순화원(順化院)에수용되엇섯는바본정서에서는달은수용자에게도 전염될념려가 잇슴으로 류치장에소동을하고 방금경계중이라더라

僧房悲曲
지나간날 (四)
獨鵑 作 羅雲奎撮影監督 [49]

그날아츰이엇다

윤권의집에는 울고도 남을비극이일어낫다

새벽을 갈려갓든 이웃집녀자는 옥불안을 들여다보고 긔급을하게 놀랏다 좁다란옥불안에는삼단가튼머리를 헌갈래 만갈래흐틀어트린 녀자의 시톄가반만치 떠잇섯다

그것은 쇠내보기도권에 윤권이의 시테로 판명되엇다

몃칠동안 은순하게 자긔방에 업되어잇든 윤권이는 마츰내가도모하고 아니가도못할 현실의악착한길을 버리고 영원의길을 떠날양으로 닭우는새벽에 집안사람들의 잠든틈을타서 자긔집을나온것이엇다

옥물두덩 한모퉁이에는 윤권이의 신발이 나란히 노히고 신발우에는명진에게주는어텬으로써 두툼게쓴한장의유서가조고만돌에 눌리어잇섯다

> 이마지막글월을사랑하는명진씨에게올립니다
>
> 명진씨갑니다저는갑니다 당신을영원히버리고갑니다
>
> 디주의첩이되어더러운몸으로당신을버리는것보다는깨끗한몸으로당신의품을떠나려합니다
>
> 한만코원만흔이몸을세상이건만당신이살아계실것을생각하면그래도그립습니다
>
> 부대부대안녕히계십시요 인연잇스면뭇업고설음업는저세상에서나길히뵈실가합니다
>
> 멀고먼나라로가는윤권이는올림

이소문은 온동리가 떠들석하엿다 소문을듯고 달려온명진은보기에도참혹한 물에부른 애인의 시테를들어안고 자긔가 크다란 죄를 지은것도 니저버리고 흑흑늣겨울고소리처울엇다

윤권의집에서는 황망한중에 엇절줄을모르고 갈팡질팡 하는판에 리준식의집에서는 윤권이를 마저갈 사인교(四人轎)가 나오고 하인배들이렬어나왓다 윤권이의 눈물겨운죽엄에 동정하는 동리청년들은 의분에 못이기어 동구밧그로내다르며 『색마의병졸들은 단매에뗘려부서라』는소리를질으고 다닷는데로 쫘려뉘우는 한바탕비활극 까지 일어낫다

윤권이의 죽엄에대한 동리사람들의 비평은여러가지이엇고 부모의말을 듯지안코 죽어버렷다 업서서 그따위짓을했다고 부뎡하다고욕을하는 늙은이들도 잇고 쌔끗한동리를더럽힌 간음한 죄인으로 몰리는 예수교인들도 잇고 또한편으로는 사랑을위하여 목숨까지를버린 굿세인녀자라하야 련애지상주의(戀愛至上主義)로찬미하는 청년남녀도잇고 또다른편으로는 이것은순전이부자와 가난한 사람사이에 일어나는 비극으로그죄악은 디주리준식의 횡포에 잇다하야 사회주의뎍 견디 (社會主義的見地) 에서 비판을 나리는 새사람들도잇섯다

그래서 이새사람들은 어때가지나 사회뎍 처재를주어이런 횡포가다시업도록한다고팔을썸내어 분개하엿다

명진은 윤권이의 거룩한죽엄으테 자긔의나갈길에 주저하엿다

『애인의 눈물자취를밟아이세상을 떠난것이냐? 아니다죽거면예메가지 이세상에서 원일이엇다 윤권이를 위하여디주놈에게 복수를 하여야한다 아니다비단 리준식이 놈이아니다 돈의힘으로모든것을 빼아스려는 부자놈들을 모주리 징치하는것이나의일이다 그러케하면 저세상에서 내려다 보는 윤권이도깃버할것이다

명진이는 주먹을부르쥐엇다 그는지금까지 세상을별로 저주해본일이업섯다 딸아서 디주가소작인을 착취하거나 부자가가난한사람을 짓밟거나 그것이모두당연한일로생각하엿섯다 영돼기를어떠부치는 까닭으로 디주의아들이나 손자가 장가를갈때에는 뼈을셈으로 취갓다바치고요공을하고 그것도 부족하며로예가려 그집뒤까지 하여주는것이나 디주집에서 정이월에닭의알을이삼십개내어주며닭을쎄워다가가을에큰닭으로들며오라는명령을 내리고 구시월에가서 그톰을쳐 노코몸에내여준닭의알수효대로 닭을밧다가 닭이좀처어서그물구멍으로 새어 나가면다른큰닭으로 밧구어오라는 그런착취 수단에도 디주의 덕에먹고 살거니하면 불평은업섯다 그래서 그처내가복을돗라구낫스니 할수잇나는하고 단념을하고 디주에게 충직할뿐이엇다

그러든 명진이도 이번만은참을수가업섯다 넓고넓은이 련디에도 하나밧게업는 윤권이를빼서간것이 죽인것이 디주리준식이거니 돈잇는놈의 횡포이거니생각하는 이번만은……그러나 몸술일을하는데는 힘가업는 명진이는 빼주에갈돌가지고 준식이를죽인다고 그의집으로 미친드시 뛰어들어가기도하고 아부놈이나 부자놈만보면 얼굴에다침을뱉고 욕을하여 남들은 명진이를미친 놈으로 몰려버렷다

윤권이의 죽엄과 명진의경우에 동정하는 그곳 청년들은디준식을 성토(聲討)를하느니 축출을하느니 배척운동이 극렬하엿다

그러기때문에리준식은스스로참피도하고 겁도나서 그만서울로 반이를하고말앗다

미쳣다고 소문이낫든 명진이도 그후어데로갓는지종적을감추어 버리엇다

이리하야 한동안떠들든 소위윤권이 우물에씨져죽은 사건도차차 일업는사람의 녯이야기로변하여갓다

窃盜常習者 洪淳福金瓚玉
륙일에검사국

시내 재동(齋洞)오번디 홍순복(洪淳福)(三)과동동김찬옥 (金瓚玉)(三八)의 두명은공모하야 생활난에몰리어 금년삼월상순경부터 시내각처에서 절도질을 하야 한바 륙월사일오전한시경에 시내화동일백삼십삼번디(花洞)강청덕(姜聖德)(三九)의 집에 침입하야 면주우산(綿紬雨傘)외 수점을 절도한외에 그전수가 무려일백십오건에 달하는바 그동안종로서에 데포되어 엄중한 취됴를 밧든중 륙일오전에 일건서류와함께 검사국에 송치하엿다 더라

(京城測候所午後二時觀測)

六日最高溫度 九十四度五分

(昨年今日溫度九五度一分)